

제 3 호

대림 세째 주일

1972. 12. 17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안 부 진 신부



12월에 접어들면 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기분으로 들뜨는 듯하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이날을 어떻게 보내왔는가? 거룩하고 고요한 밤이어야 할 그날이 거룩한 밤이라기 보다는 망척스러운 밤이었고, 고요한 밤이라기 보다는 소란한 밤이

있음에 틀림 없다.

망나니들이 밤거리를 누비는 밤, 주정꾼들이 판을 치는 밤, 못 청춘 남녀들이 여열 하숙집이나 아니면 여관 호텔에서 값싸게 정조를 내동댕이 쳐 버리는 저주스러운 밤이 되어 버렸다. 이 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씻고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일년 내내 발이 묶였던 통행금지에서 해방시켜 주는 구세주로 되어 버렸다. 그들은 24시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날로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친애하는 교형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아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것이 슬픈 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의 거룩한 성탄절의 뜻을 모르고 도리어 죄악의 밤으로 지내는 것 또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일 모레로 다친 성탄절을 앞두고 그 뜻을 잘 알아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12월 25일은 무슨 날인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하기 전에는 어떤 지방에서는 4월 20일, 또는 1월 6일로 지낸 듯하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12월 25일을 불굴의 태양에게 봉헌했었다. 동지가 지나고 다시 낮이 길어지는 이날은 「불굴의 태양」이란 칭호를 가지고 있던 「미트라 신」의 축일이었다. 로마 시대의 축제일이라면 얼마나 요란했겠는가? 그 모든 소란함에서 신자들의 마음이 중요 될까 걱정한 교회에서는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날을 고요한 그리스도의 탄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날을 태양의 참된 주관자 그리스도의 탄일로 함으로써 로마인들의 미신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고요한 밤이요, 진리와 평화의 밤이다. 우리는 그 옛날 베트레렘 외양간에서 고요하고도 평화스럽게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참뜻을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만은 항상 고요하고 거룩하게 지내도록 노력하자. (중앙 성당 주임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왔으니,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 제1독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이사야서 61장)

□ 증계송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함이어,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날뛰나니,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나이다.

□ 제2독서 (테살로니카 전서 5:16-24, 성서 p.470)

□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성신이 내 위에 계시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도다. 알렐루야.

□ 복 음 (요한 1:6-8,19-28, 성서 p.202)

□ 신자들의 기도

1. 전 세계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날로 시들어가는 인류의 양심을 일깨워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모든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로 하여금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

3.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남을 용서하는 미덕을 기르게 하소서. ◎

4. 모든 선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참된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

5.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게 하소서. ◎

□ 대림 감사송 1이나 2

□ 영성체송 소심한 자들아, 우리 천주 몸소 오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용기를 내어 무서워 하지 말라.

※ 이주간의 성경 ※

18(월)독서 (에페소 2:1-5, 성서 p.438)

복음(마태오 1:18-24, 성서 p.1)

19(화)독서 (에페소 2:6-10, 성서 p.439)

복음(루가 1:5-25, 성서 p.121)

20(수)독서 (에페소 2:11-16, 성서 p.439)

복음(루가 1:26-38, 성서 p.122)

21(목)독서 (에페소 2:19-22, 성서 p.440)

복음(요한 20:24-29, 성서 p.260)

22(금)독서 (에페소 4:17-24, 성서 p.442)

복음(루가 1:46-56, 성서 p.123)

23(토)독서 (에페소 4:25-32, 성서 443)

복음(루가 1:57-66, 성서 p.124)

새 전례에 맞는

가톨릭 기도서

가톨릭 출판사 발행 (값 200원)



□ 교리교실 □

회 개 (悔改)

박진량 신부

우리 인간 존재의 심층에는 지성 보다 더 깊고 감정보다 더 인격적이고 잠재의식 보다 더 인간적인 단계가 있다. 그것은 인식과 사랑이 일치하는 단계이다. 거기서는 인식은 이미 싸늘한 빛이 아니며, 사랑은 맹목적인 충동이 아니다. 지식 자체가 사랑에 차 있고, 사랑 자체가 예지에 차 있다. 이 단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自我)」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가톨릭 신앙 입문 p.161~2 참조)

이렇게 우리 인간 존재의 핵심인 「자아(自我)」를 하느님께 내 맡기는 행위 혹은 상태가 바로 진정한 사랑이며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으로 이 「자아」를 하느님이나 이웃에게 내 맡기지 않고 자기 안에 밀폐시켜 놓음으로써 자기 중심 주의에 빠져 있기가 쉽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시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마태 3:2)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Conversion)란 말은 본래 그 어원이 말하듯이, 「자아」(자기 존재의 핵심)를 자기 속에 밀폐시켜 놓던 상태에서부터 자기 아닌 다른 인격(하느님과 이웃)에게 내 맡김으로써 자기의 생활 좌표를 정반대 방향으로 바꾼다는 말이다.

세례자 요한은 또한 회개의 방향 즉 자기 존재의 핵심인 「자아」를 내 맡길 대상인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늘 나라」 즉 「완전한 하느님이요 완전한 이웃인 예수님」의 도래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제 회개의 뜻은 더욱 분명해진다.

회개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주의」에서 부터 「예수님 중심주의」로 자기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인 언어행동은 물론, 무엇보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심층부에 자리 잡은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참 하느님이요 참된 이웃이신 예수님에게 내 맡기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 대한 진정한 신앙이며, 하느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또 회개는 사랑 자체가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통반한다.

자, 이제 우리는 매년 대림절에 「회개 하시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애써 들려주는 교회의 의도를 알 것 같다. 회개는 세례 받은 신자의 필생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센터 관장)

□ 양지쪽 □

공 사 중



우리는 길을 걸다가 <공사중>이라는 뜻말과 그 현장을 자주 만나게 된다. 번영과 행복의 80년대를 향한 우리들의 발돋움울 집약하는 호젓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사중에 보행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우게 당할 수 있는 불편인가? 현대 문명은 그 공사가 지지 부진하게 끌어 나갈 때이다.

우리의 생애는 항상 공사중이다. 더 나은 인격 형성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우정을 위하여, 더 멋있는 미(美)를 위하여,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더 만족스러운 부(富)를 위하여, 더 튼튼한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공사중이다. 다만 그 차원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잠깐 당신이 세운 목표에 당신의 공사가 몇 %나 진척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자. 아직도 논두렁에 쌓여 있는 벼 싹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는 사람이 그려할전대 농사를 지은 당사자의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제 때를 잃은 일, 이것은 더 더욱 아무 것도 아니다. 당신의 공사는?

성탄절을 여드레 앞두고 우리는 한창 바쁘다. 항상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성탄절에 좀더 잘 모시고 싶어서 우리의 집(마음과 몸) 단장 손질에 바쁜 것이다. 아직 대문앞 청소도 채 끝나지 않은 상태는 아닌가? 집안 구석 구석 털고, 불고, 쓸어서 깨끗이 해 놓고 모셔야 할 줄은 다 알겠지만, 당신의 공사는 얼마나 진척되었는가?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집이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그분에게 불편을 드린 적은 없었는가? 요새 같은 날씨에 문은 찢어지고, 연탄불도 꺼지고, 지붕마저 새어서는 녹아 내리는 물방울이 그 분의 이마를 적신 적은 없었는가? 그래서 그 분이 훌쩍 당신을 떠나신 적은 없었는가?

우리의 일생은 항상 공사중이어야 그 값이 있다. 지금 현재로는 살기 좋은 집이라도 꽃밭을 더 아담하게 꾸며야겠고, 더 아늑한 방을 꾸미기 위해서 또 손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갑>

성서 성물 판매

성 바오로 서원

중앙 성당 옆 (전⑦398)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북	자	서	학	동	진	동
교 리 교 실	예 비 자	일 반	일(11시) 화. 목(10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일(11시)
		직 장	화· 목(오후 8시)	화(오후 7시)	수(저녁미사후)	일(오후 8시)									
	학 생	수· 토(오후 7시)													
	아 동	토(오후 3시반)	토(오후 3시)	일(오후 2시반)	일(11시)	일(9시)	일(9시반)								
	학 생	일(9시)		토(오후 4시)				일(11시)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위 문 편 지

이 우 철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형, 나 위문편지 한장 써 줄래? 선생님께 써 오라는데 이거 어떻게 쓸수가 있어야지……” 하며 여간해서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않고 저 혼자서 어떻게 일렁뚱뚱 맞 추어 매는 녀석이 오늘은 좀 제 생각대로 안되는지 나에게 아쉬운 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 그런 거 같으면 네가 한번 써 보아라. 다 쓴 다음에는 내가 봐 줄게” 하였더니 “글쎄 생각은 있는데 막상 쓸려니까 잘 써지질 않잖아” 하며 생각은 미리 해 보았지만 자기 뜻대로 안되니 좀 도와달라는 눈치이다. 나는 이 녀석의 생각이 궁금해서 “그래, 네가 만약 전방에 간다면 그곳 장병아저씨께 뭐라 할래?” 하고 물었더니 이 녀석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내 “아저씨! 추우시죠? 제가 아저씨께 커피 한잔 대접할게요, 추운때 따끈한 커피를 마시면 속이 후련해 진대요”. 하고는 “이렇게 커피를 한잔씩 따라 드리고 싶어” 하며 아랫 찬장에 있는 보온병에다 커피를 가득 담아 가지고 가겠다 한다.

나는 커피를 따라 주는 시늉을 해보이는 동생의 모습이 어쩌나 귀엽고 반갑던지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래

노영아, 지금 네 그 생각을 글로 옮기면 아주 훌륭한 위문편지가 되겠다. 같이 써 보자” 하였다. 그리고 보니 내가 군문을 떠나온지도 벌써 9개월째가 되나 보다. 그동안 나는 미처 못했던 공부를 하느라고 군생활의 짝다른 추억에 젖어볼 겨를도 없이 바빠 설켰는데 오늘 이 위문편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치 낯선 외국 거리에서 언뜻 모국어를 들은 것처럼 진한 향수가 찌르르 가슴에 스며든다. 나는 정훈장교로 4년동안 군에 복무하였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부대 내에서의 내 인기란 단연 톱의 스타덤에 오르곤 하였다. 그건 바로 이 위문편지 덕이었다. 상급부대로 부터 위문편지를 수행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대대장님이 특별히 내어준 지프를 타고 가면 그중에도 제일 먼저 눈길이 쏠리는 건 하얀 푸대 속에 가득 들어있는 위문편지였다. 그 하얀 푸대를 쏘으면 그속에서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 상냥한 누나의 환한 웃음, 동생들의 재롱이 한없이 나올것만 같은 것이었다.

나를 산타 할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있을 우리 부대 장병들의 모습을 그려 보며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차에 싣고 부대로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흐뭇하기만 했었다.

내무반에서, 훈련장에서, 또 전차 속에서 무슨 진귀한 보물상자라도 열듯 조심스러이 위문편지를 펼치며 입을 우리 장병들에게 올 때에는 내가 위문편지를 쓸 차례가 됐다. 조국의 초석이요, 겨레의 햇불인 그들에게 따끈한 한잔의 커피 같은 글들을 띄워야 겠다.

(전주시 태평동 1가 14~3)

※독자투고환영 (200자 3매 내외 혹은 7매, 사진 동봉 요망, 본당 및 본명 기재 요망, 보내실곳→전주 해성 중학교 (전 ㉠ 3998)

국군 장병 위문하여 장병들과 군종 신부님들의 사기를 높여 드립니다

- 전주 지구 교육분과 위원회 결의 사항 -

- 1. 방법 ① 편지 쓰기 ② 위문품 수집
 - 가. 뜨개질한 털 양말, 털 장갑
 - 나. 솜이불, 담요, 내의, 방석
 - 다. 위문품 대신 현금도 접수합니다.
- 2. 접수기간 1972. 12. 3-12. 18(자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
- 3. 전 달 1972. 12. 20일경

= 신부님이 안 계시는 시골 공소에 후보를 보냅니다 =

신부님 안계시는 공소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될 후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형제애를 발휘합니다. ※ 독자들께서 우편요금만 (1구좌에 1년 500원) 부담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후보를 보내 드립니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②3498)

- 18(월) 지성인 교리 교실(제2기)-오후 8시
- 19(화) 성경 교실-오후 8시
- 20(수) 레크레이션 교실(성탄절 준비)-오후 8시

- 21(목) 불어 문화 교실(배 요셉 신부 지도)-오후 8시
- 22(금) 지성인 교리 교실(제1기)-오후 7시 반
- ※음악과 차가 있는 휴게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 신용과 성실을 자랑하는 자

럭키사진관·럭키예식장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배 상 철(바울리노)

중앙성당 뒤 전화 ㉠ 4945

동남 Sharp T. V. 및 스토-브

전주 대리점

전주극장 입구 ㉠ 5504

여요셉(윤창)

전주시내 6개 분당 소식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1. 관공성사: 아직 관공성사를 보지 않으신 분은 매일 미사후에 성사를 보십시오
2. 교무금: 신입액 2,481,450원 91%
미신입세대 496세대 49%
12.12 현재 납부액 364,600원
3. 성가 연습: 성탄절에 대비하여 매일 오전 10시반부터 성가 연습이 있음. 특히 남 교우들의 참석 요망.
4. 혼배성가: 12월 21일 오전 10시와 23일 오전 10시에 혼배성가 미사가 있음
5. 지난 주일금 31,188원, 감사합니다.
6. 영세찰고 안내:
학생: 12월 19일 오후 7시30분, 20일 오후 7시 30분
일반: 12월 21일 오전 10시, 오후 8시
22일 오전 10시, 오후 8시
7. 영세식: 12월 23일 오후 3시에 있음
8.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반회장 임명
유복례 진북동 1구 3반 회장에 임명함
12월 15일 총제 신부 안복진
=애령회 육성기금 회사=
서노 2구 이두만 회장님은 애령회 육성기금으로 5,000원을 회사해 주셨습니다.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1. 부녀회 월례회 (12월 17일 공식미사후)
2. 병자 관공성사 (12월 19일 화)
구역장은 병자 성사 준비하여 신부님과 동반할것
3. 가을 관공 성사 실시
20(수)...남노송동 22(금)...중노송동 2가
21(목)...중노송동 1가 23(토)...인후, 우아동, 신교리
- ※ 시간...오후 2-6시, 7:30-9:30
- ※ 성사표를 오전에 발급하오니 판공비 (50원이상)와 정양회비 (1인당 5원이상)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72년 교무금 완납, 73년 교무금 신입 요망.
- ※ 72년분 본당 신축 기금도 힘대로 납부합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박 회주(도마)군과 이 한선양
12. 18 (월) 11시, 노송동성당에서
채 완수군과 한 금순(막달레나)양
12. 23 (토) 11시, 노송동성당에서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신용조합 월례회 (12월 17일 11시)
2. 가을관공 18(월)...덕진, 송천동 19(화)...금암, 팔복동. 되도록이면 정해진 날에 성사를 봅시다.
3. 부녀회 월례회 (12월 24일 공식미사후)
4. 사도회 임원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여러분의 빠짐 없는 참석 바랍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관공성사 (게시판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람)
2. 성당 청소 (매주 월요일 10시)
숙취의 뜻으로 즐거움에 희생합니다.
3. 어머니 성가 연습 (매주 월요일 저녁미사후)
4. 복자 협동 소비조합을 많이 이용합니다.
좋은 상품을 염가로 제공합니다.
5. 복자 애령회는 병풍, 포, 대고상, 성수기, 향로, 촛대, 조화, 소독복을 완전 구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령회 잔금 208,585원)
- 지난주 성미 4말 2되, 누계 66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072원, 감사합니다.
- 우리들의 복자성당은 우리들의 힘으로 ●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관공성사 (오전 9시~오후 5시)
20(수)...1.2.3.7.8반 21(목)...4.6.9.16반
22(금)...10.11.12.13.15반 23(토)...평화,삼천동,기타
- ※ 지정된 날짜에 성사표를 가지고 성사 보시기 바람
2. 신용조합 월례회 (12월 17일 공식미사후)
3. 성탄 경품놀이 (상록수 쉼)에 협조바랍니다.
4. 성가대 발족 (12월 10일)...매일밤 7시반에 연습
5. 도서관 개관 (12월 11일)...매일 오후 7~11시
6. 축하합니다.
- ※ 상관공소 (회장 강인선, 부회장 이정우, 이규봉)
※ 양생동 공소 회장에 배영철씨 피선
※ 박용성 군과 이영민 양 결혼 (12월 16일)
지난주일 봉헌금 7,310원, 교무금 17,20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주일학교 아동 교리시간 변경
(일요일 오전 10시 → 9시 30분)
2. 가을 관공성사 (12월 17일 오후 2~5시)
손님 신부님께서 성사 주시겠습니다.
3. 신학생과 휴양 신부님을 돕기 위한 성미 수집.
주일미사 나오실 때 조금씩 가지고 오셔서 성미통에 넣어 주십시오. 좋은 뜻을 이해하시어 적극 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4. 꼬미시움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 유치원)
5. 성탄 성가 연습 (18일부터 매일밤 7시 30분)
 지난주일 봉헌금 27,643원
 애령회 특별헌금 5,823원 감사합니다.

J. O. C

전주교구에 몸을 담고 있던 투사님들과 옛정을 나누고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출이라는 모임을 정하고 자리를 같이 하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투사님들은 꼭 연락 주옵소서.
발기인 김동기(마리아) 외 5명
연락처 가톨릭센터 (전) 3498 한아가다

		중앙	노송동	덕진	복자	서학동	전동
미사일	오전	6시반, 10시	6시반, 10시	10시	10시	10시	6시, 10시, 11시
	오후	7시 (토요특전 5시)	7시 (토요특전 5시)	4시, 7시 (토요 특전 7시)	7시	7시	7시
시평간일	오전	월.수 (6시반) 금 (10시)	금 (10)	월.수.금 (6시반)		월.목 (7시)	월.화.목.금 (6시)
	오후	화.목 (6시)	화.수.목 (6시반)	화.목 (7시)	매일 (7시)	화.수.금.토 (7시)	수.토. (7시)